1990~1999년 일본 일간지의 혐한 담론 표상 방식*

노윤선**
ysroh1008@naver.com

<目次>

1. 서론
2. 신문사별 혐한 담론 현황
2.1『산케이신문』국장의 혐한 표상
3. 주요 사건별 혐한 담론
3.1 김영삼(1993)·김대중(1998) 정권 탄생
3.2 한일공동선언(1998.10.8)
4. 결론

主題語: 嫌韓(K-Hate), 黒田勝弘(Katuhiro Guroda), 金泳三(Kim, Young Sam), 金大中(Kim, Dae Jung) , 韓日共同宣言(Korea-Japan Joint Declaration)

1. 서론

이 논문은 일본의 언론사 특히 일간지가 혐한에 대한 담론이 등장한 이후에 어떠한 논조들을 구축하고 혐한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전개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1990~1999년 일본 사회에서 전개된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일본 일간지에 나타난 혐한 담론에 관한 연구는 특정 일간지 및 일부 기간에 한정된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었는데, 이는 일본 일간지들이 형성해 온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혐한 인식이나 사건을 통해 형성한 혐한 논조들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써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본 일간지별 혐한 논조 및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한 흐름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일본의 5대 일간 신문이자 전국지인『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아사히신문(朝日新聞)』,『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산케이신문(産経新聞)』과 함께 일반지[1]를 분석 대상으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2079)

**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

1) 일반지는『北海道新聞』,『十勝毎日新聞』,『室蘭民報』,『東奥日報』,『デーリー東北』,『岩手日報』,『河北新報』,『石巻かほく』,『秋田魁新報』,『山形新聞』,『福島民報』,『福島民友新聞』,『茨城新聞』,『下野新聞』,『上毛新聞』,『埼玉新聞』,『千葉日報』,『東京新聞』,『神奈川新聞』,『新潟日報』,『北日本新聞』,『北國新

삼는다. 본 논문은 일본 현대문화 속의 일간지들이 혐한 표상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혐한 사건들과의 연계성을 규명함과 동시에, 한국 혹은 한국인을 어떻게 기억하였는지를 실증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신문사별 혐한 담론 현황

1990~1999년 '혐한' 용어가 사용된 기사의 신문사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을 보면 혐한 담론이 김학순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증언 이후인 1992년부터 등장했음을 확인[2]할 수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일간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혐한 담론은 10년 동안 일간지에 등장한 것이 전체 336건으로, 각각의 신문사별 총 기사 횟수로는 『산케이신문』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53건인 『홋카이도신문』과 39건인 『마이니치신문』이 뒤를 잇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1990~1999년 '혐한' 용어가 사용된 기사의 신문사별 현황[3]

년도 / 신문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朝日	0	0	5	3	3	2	4	1	5	0	23
每日	0	0	5	6	2	1	10	2	11	2	39
読売	0	0	5	8	3	2	3	2	4	1	28
産経	0	0	6	15	4	4	2	8	23	1	63
日経	0	0	7	5	3	3	2	3	5	0	28
西日本	0	0	7	4	0	0	0	0	2	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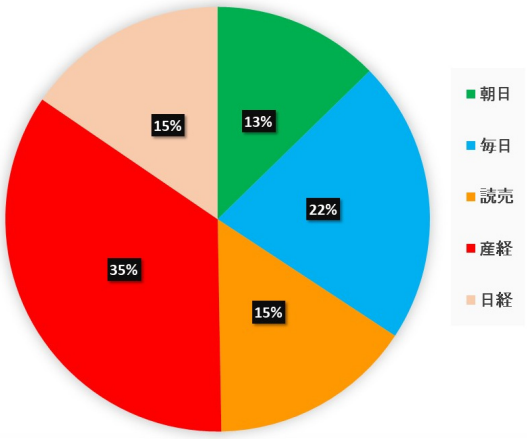
聞·富山新聞』, 『福井新聞』, 『山梨日日新聞』, 『信濃毎日新聞』, 『岐阜新聞』, 『静岡新聞』, 『伊豆新聞』, 『中日新聞』, 『伊勢新聞』, 『京都新聞』, 『大阪日日新聞』, 『神戸新聞』, 『奈良新聞』, 『紀伊民報』, 『日本海新聞』, 『山陰中央新報』, 『山陽新聞』, 『中国新聞』, 『山口新聞』, 『徳島新聞』, 『四国新聞』, 『愛媛新聞』, 『高知新聞』, 『西日本新聞』, 『佐賀新聞』, 『長崎新聞』, 『熊本日日新聞』, 『大分合同新聞』, 『宮崎日日新聞』, 『南日本新聞』, 『琉球新報』, 『沖縄タイムス』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2) 이와 관련된 내용의 선행연구로는 노윤선(2016)「일본 신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혐한(嫌韓) 기사 분석과 혐한의 해소방안-혐한 최초 기사와 최근 기사를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54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97-311에서도 분석하고 있다.

3) <표1>은 '혐한' 용어가 사용된 기사의 연재 기사 건수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연재 기사에서 나타난 한국과 한국인에 관한 논조까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北海道	0	0	5	9	1	0	5	0	32	1	53
中日	0	0	3	3	1	3	3	0	3	0	16
河北	0	0	1	1	1	0	0	0	1	0	4
佐賀	0	0	0	0	1	0	1	0	9	0	11
愛媛	0	0	0	0	0	0	1	0	1	0	2
熊本	0	0	0	0	0	0	1	0	6	4	11
中国	0	0	0	0	0	0	7	3	7	10	27
東京	0	0	0	0	0	0	0	0	5	0	5
京都	0	0	0	0	0	0	0	0	1	0	1
琉球	0	0	0	0	0	0	0	0	3	0	3
北國	0	0	0	0	0	0	0	0	1	0	1
沖縄	0	0	0	0	0	0	0	0	5	0	5
山陽	0	0	0	0	0	0	0	0	0	2	2
합계	0	0	44	54	19	15	39	19	124	22	336

특히, 일본의 주요 5대 일간지만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1>과 같다.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유일하게 신뢰하고 있는『산케이신문』의 경우에는 5대 일간지 전체 181건 중에서 63건으로, 5대 일간지 중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마이니치신문』이 39건으로 22%를,『요미우리신문』과『닛케이신문』이 28건으로 15%를, 마지막으로『아사히신문』이 23건으로 13%를 차지하였다. 현재『산케이신문』의 국장을 맡은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는 혐한론자로 유명한데, 과거 그가 쓴 기사들을 살펴보면 1990년에서 1999년까지 10년 동안 총 25건(1992년 4건, 1993년 7건, 1994년 1건, 1995년 1건, 1996년 0건, 1997년 4건, 1998년 8건, 1999년 0건)으로 무려『산케이신문』전체 기사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1> 1990~1999년 ‘혐한’ 용어를 사용한 5대 일간지 비율

2.1『산케이신문』국장의 혐한 표상

이처럼 혐한 용어를 사용한『산케이신문』의 기사 중에서 구로다 국장이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해 보이며, 연도별로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92년에는 4건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10월 29일 자 기사[4]는 중일국교정상화 20주년을 맞이하여 일왕이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한일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이하는 1995년에 일왕의 한국 방문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실제 1995년에 일왕의 방한은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일본의 혐한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지일파 지식인이나 한국 정부 당국 등에서 과거에 연연한 대일외교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구로다의 논조는 이후에도 계속 등장한다. 11월 8일 자 기사[5]는 허문도(전 전두환 정권 시절 대일관계 책임자/전 대통령 제1 정무수석 비서관)를 인터뷰한 내용으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그의 발언[6]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다. 11월 10일 자 기사[7]에서는 ‘한일관계 냉각화의 배경은

4) 「皇室外交·残るは韓国だけ 薄れる拒否感情、熟しつつあるご訪問の機」『産経新聞』, 1992.10.29
5) 「許文道元大統領政務主席秘書に聞く・日韓間の信頼深め、北東アジア安定を」『産経新聞』, 1992.11.8
6) “최근 일본에서 나타난 ‘혐한’과 ‘염한’의 배경으로 1. 한국이 일왕에게 사죄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반발 2. 커져 버린 한국의 존재감 3. 냉전 종결 후, 일본인의 대국 의식 4. 일본군 성노예 문제로 상처받은 자존심 등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 감정 악화는 오히려 일본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한국인의 대일감정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한·일 관계가 강화되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이 최대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일본인이 말해온 국제적 공헌 혹은 국제적 역할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옛날에 좋은 말을 나쁜 시대에 사용했지만, 한·일을 축으로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동아공영권’은 지금이야말로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한국 여론과 그것을 배경으로 한 대일외교에 일본이 싫증(嫌気)을 나타내기 시작한 결과임에도 한국 매스컴은 한국을 향한 일본의 불만을 한국 외교의 성과(북방외교에서 주도적인 것)에 대한 질투에서 온 것이라고 전달하는 것은 한일관계에서 심리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종의 내셔널리즘(민족주의)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한국 언론을 향한 강한 비판 내용으로 주를 이루었다. 12월 2일 자 기사[8]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하여 미야자와 수상과 회담하기로 한다'라는 기사 내용이었는데, 2월에 새로운 김영삼 정권을 앞두고 있었던 1993년 1월에는 한일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오보를 낸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1993년에는 7건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2월 16일 자 기사[9]에서는 새로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된 김재순 의원이 한국 정계에 몇 없는 지일파라며, 그가 발언한 "옛날의 친일은 매국노였지만, 현재의 친일은 애국자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그가 한국 여론에 대해 냉엄하게 반응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고 동조하는 내용이었다. 2월 23일 자 기사[10]에서는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수석 비서관을 발표하자마자 3일 만에 사퇴한 일을 언급하면서 '구한국(旧韓国)'적인 모습이라며,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또한 재한일본인들의 경험을 인용하면서 '한국은 돈이 법률과 규칙을 초월한 나라'라는 비난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재한일본인들의 한국관을 인용한 내용은 3월 14일 자 기사[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일본인회 회지인 『서울(そうる)』에 실린 회원들의 한국관에 대한 앙케트 결과 내용은 "일본의 '혐한', '염한' 감정에 대해 '일본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보다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한국에 문제가 있다'라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사 내용을 접한 일본에 사는 일본인의 경우, 혐한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국에게만 돌릴 위험성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기사의 의도적인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김영삼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2월 24일 자 기사[12]에서는 '정상이 아닌 북한'에 대해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일본이 곤란해진다'라며, '한국의 남북통일 비용 문제를 일본 자본에 충당할 것이 분명'하므로 통일이 단순히 남북당사자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7) 「首脳会談認識にずれ 韓国·北方外交の"嫉妬"緩和 日本·嫌韓ムードを解消へ」『産経新聞』, 1992.11.10
8) 「盧泰愚大統領来日は関係修復が狙いか」『産経新聞』, 1992.12.2
9) 「【人】韓日議員連盟会長になった 金在淳さん」『産経新聞』, 1993.2.16
10) 「【「新韓国」始動】(上) 風土との戦い繰り返される「不正腐敗追放」」『産経新聞』, 1993.2.23
11) 「【外信コラム】ソウルからヨボセヨ 日本人会の韓国観」『産経新聞』, 1993.3.14
12) 「【「新韓国」始動】(中)北の核心を撃て、「人権」「民主化」はっきり要求」『産経新聞』, 1993.2.24

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2월 25일 자 기사[13]에서는 한일국교 회복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한 세대들이 대통령의 스태프로 있는 것과 당리당략으로 '반일'을 이용하는 것을 잘하는 야당 정치를 오래한 사람이라 이러한 점들이 대일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경이 쓰인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도 서울주재 일본 외교관의 "일본이 국제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다리를 붙잡는 것이 한국이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관철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9월 1일 자 기사[14]에서도 '김영삼 정권의 대일 인맥은 50대의 비일본어 세대로 지금까지 일본과는 대부분 관계가 없었다'라며, '역사상의 반일 독립운동가의 표창이나 옛 조선총독부 건물의 해체 및 철거 등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화려한 정책'만 보아도 '외교에 서툰 국내 지향이 강한 정권'이라는 논조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월 8일 자 기사[15]에서는 한국의 대일 강경노선 전환 이후 11월 6일과 7일에 경주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본격적인 '김영삼 외교'의 시작으로 보고 있었으며,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 護熙)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사죄 표명한 '과거의 식민지 지배를 가해자로서 마음에서 반성하고 깊이 사과하고 용서를 빈다(過去の植民地支配を加害者として心から反省し深く陳謝する)'라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에 대해 기대 이상의 표현으로 '반성과 사죄'의 말'로 서술하고 있어 총리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994년의 3월 21일 자 기사[16]는 24일 김영삼 대통령의 첫 공식 방일 전에 지일파로 알려진 이영희(『もうひとつの万葉集』저자) 작가에게 한일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녀의 발언인 "김영삼 대통령과 동시대인으로 전중파(戦中派)이며, 일본이나 일본인에 대해 비교적 편견이 없는 세대일 것이다. 일본 시대는 어렸을 때여서 나쁜 경험이 그다지 없을 것이며, 학교에는 훌륭한 일본인 선생님들이 많았다"라는 말과 함께 "조선통신사는 일방적인 관계로 교류가 아니었다.……조선통신사 일행은 대마도와 떨어진 곳에서 일본이 준 선물을 바다에 버렸다.……일본을 이해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여과 없이 실렸다. 이것은 한국 대통령의 첫 공식 방일 전부터 훼방을 놓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그 저변의 의도를 단순하게 넘어갈 사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5년의 1월 12일 자 기사[17]에서도 역사적인 부분을 끌고 와서 인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의

13) 「【「新韓国」始動】(下)対日協力の時代へ 批判一辺倒からの転換が課題」『産経新聞』, 1993.2.25
14) 「新政権初の日韓·韓日議連総会 新たな関係模索 世代交代で双方苦労も」『産経新聞』, 1993.9.1
15) 「日韓首脳会談「120%成功」 金泳三外交にはずみ、APECなど積極対応へ」『産経新聞』, 1993.11.8
16) 「これからの日韓関係 知日派韓国作家·李寧熙さんに聞く若い世代で新しい歴史を」『産経新聞』, 1994.3.21
17) 「【発信新アジア】(10)発想の転換 アジアの懸け橋へ着々」『産経新聞』, 1995.1.12

주요 내용은 '한국판 신칸센인 '서울-부산 고속철도 계획'에 프랑스의 TGV 도입이 결정'되어 일본 비즈니스계에서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자세가 21세기에 펼쳐질 큰 기회[18]를 놓쳤다는 것이다. 여기에 구로다 국장이 마지막에 덧붙인 내용은 일본인은 혐한을 넘어서 일본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조선 근대화를 목표로 한 김옥균의 발언(일본이 아시아의 영국이 되면 우리는 아시아의 프랑스가 되자)처럼 한일관계를 '동아시아 시대의 영불'로써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화두를 던지고 끝맺고 있다. 1996년의 5월 31일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공동개최가 사실상 결정된 전후로는 구로다 국장이 쓴 기사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는 1997년 3월 20일에 열린 '우리들이 펼칠 한일 신시대'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다. 그는 기조 강연에서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일본의 지원 덕분에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지금 한국인의 반일 감정은 일본과의 경쟁의식에서 생겨, 자신들을 북돋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일본인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19]라고 발언하였으며, 비슷한 내용을 3월 24일 자 기사[20]에서도 한국의 지일파 정치인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재차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한국인에게 반일 감정은 예부터 일상적인 주제이며, 심지어 '힘의 원천'이라고 비꼬듯이 표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도 '일본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들추어냄으로써 위안으로 삼는다는 발언은 일본군 '위안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는 것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구로다 국장의 논조와 함께 『산케이신문』은 1997년 12월 18일 한국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3일(11/27~11/29)에 걸친 '반일 카드'라는 연재 기사를 실었다. 상·중·하로 이루어진 3건의 연재 기사 중 상(「【金·李·李の戦い】韓国大統領選(上)反日カード」)과 하(「【金·李·李の戦い】韓国大統領選(下)反日カード」)에 해당하는 기사를 구로다가 작성하였으며, 마지막 기사에서 힐난하게 혐한을 드러내고 있었다. 먼저 그는 김영삼 정권에서의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목하에 옛 조선총독부 청사를 해체 및 철거한 것에 대하여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자극적인 일들'(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발언하거나 독도에 접안시설 건설과 군사 연습 시설 등)을 통해 한일관계는 '근래 최악'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후보자였던 이인제, 이회창의 대일관계 질문에 대한 답변과 김대중 진영에서 나온 소문 내용 부분을 살펴보면 구로다 국장의 한국 혹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알 수 있다.

---

18) "일본이 수주했다면 21세기를 향한 한일협력에의 파급효과는 아주 컸을 것이며, 나아가 한일 해저터널, 북한을 북상해서 중국에 이르는 '황해 신칸센' 구상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19) 「◎日韓新時代どう築く 修道大シンポ 若者交流など訴え(広島県)」『中国新聞』, 1997.3.21

20) 「批判と称賛ないまぜの感情 「反日」は韓国の"元気の素"／黒田勝弘」『産経新聞』, 1997.3.24

> 이인제 씨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 굳이 일본을 자극하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며, 뭔가 다른 신선한 의견을 말했다. 이후 3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섬에 직접 상륙하여 경비대를 격려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다. 역시 대중의 인기를 노리고 영토 문제, 즉 대일감정을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 이회창 씨는 서울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한국 외교 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며,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언급하여 일본 기자들을 놀라게 했다. 한국 정치지도자 중에서 한국 외교에 일본보다 중국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은 이회창 씨가 처음이다.
> 김대중 진영에서 이회창 씨가 일본 통치 시대였던 어렸을 적에 일본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입수했다는 소문이 정계에 흐르고 있다. 이것을 폭로하면 '친일파 가정에서 자란 인물'로 결정적인 이미지 실추라는 것이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일본'이 정치적으로 마이너스 이용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한일관계에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21]

위의 인용문을 보면 '독도 문제' 혹은 '섬'에 대하여, 실효 지배하고 있는 것이 '신선한 의견'이라는 등 한국이 영토 문제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대중의 인기와 대일감정을 이용'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어 한쪽으로 기울어진 초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외교에 있어 중요 국가 순위에서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발언은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한국 내의 정서에 대한 이해 없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일관계를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이 1997년 11월 IMF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서, 구로다 국장의 김영삼 정권 말 때리기는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2월 30일 자 기사[22]에서는 대일외교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로 나온 '한국 여론이 트집 잡아 온 독도 문제 보류론' 즉 '독도 문제를 다른 외교 문제와 관련 짓지 않으면 대일관계는 훨씬 좋아진다'라고 주장한 경향신문사 발행인 시사주간지『뉴스메이커』의 칼럼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 언론에서 '독도 문제 보류론'을 당당하게 주장한 경우는 처음이며 이례적인 논조를 환영하고 있었다. 1998년 1월 3일 자 기사[23]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평판'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과거' 문제 삼기로 인해 일본 사회에 '혐한 감정'이 퍼져 평판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한국경제의 허세가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자본도 기술도 상당수는 일본에서 빌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력이 있는

21) 「【金·李·李の戰い】韓国大統領選(下)反日カード」『産経新聞』, 1997.11.29
22) 「韓国、対日外交を反省金融危機きっかけ、感情論けん制 竹島問題の棚上げ論も」『産経新聞』, 1997.12.30
23) 「【外信コラム】ソウルからヨボセヨ 韓国の「株価」」『産経新聞』, 1998.1.3

것으로 착각하고 거만해졌다"라며, 이는 "한국인이 '사실'보다 '자존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혐한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산케이신문』은 결국 1998년 2월 25일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사요나라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연재 기사를 내놓는다. 3일에 걸친(1/31, 2/1, 2/3) 상·중·하 기사에서 (상)(「【さよなら金泳三大統領】(上)「天国から地獄」の支持率 組織無視が招いた失政」)과 (하)(「【さよなら金泳三大統領】(下)"清潔主義"の落とし穴 歴史解釈で中産層敵に」)를 구로다 국장이 작성하였으며,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부장의 강한 비판 발언을 인용하면서 김영삼 정권의 '야당 보스 체질' 비판과 함께 차기 대통령인 김대중의 야당 기간이 길었던 부분이 '신경 쓰인다'라며 기사를 끝맺고 있다.

1994년 때보다 더욱 혐한이 강해진 내용으로 1998년 10월 7일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앞둔 시점에서 구로다 국장은 주한일본대사인 오구라 카즈오(小倉和夫)를 인터뷰한 기사(「小倉和夫·駐韓大使に聞く 過去問題 国際舞台で一緒に汗流し克服」)를 9월 25일에 내보낸다.

> '한일의 과거는 1965년의 국교 정상화에서 결말이 분명히 났으며, 외교 문제로써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문제는 본래 한일문제가 아닌 일본의 일이다. 일본이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지는 일본인 자신이 생각할 것으로 한국 등 외국에서 말할 것이 아니다.' '(최근 일본의 혐한 감정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에의 무관심이 늘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24]

위와 같이 한일관계에서의 평행선을 예고한 듯한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뒤에 '이번에야말로 한일 신시대'라는 연재 기사를 3일(10/4, 10/5, 10/6) 동안 실었다. 마찬가지로 (상)(「【今度こそ日韓新時代】金大中大統領来日(上)「知日派」大統領アピール)과 (하)(「【今度こそ日韓新時代】金大中大統領来日(下) 真のパートナーシップ」)에서 구로다 국장이 작성하였는데, 한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사죄와 반성'을 통해 '일본을 비난하는 것으로 민족적 우월감을 만끽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며, 한일관계는 한국이 과거를 트집 잡지 않고 일본이 한국을 지원하고 협력해 준 것을 제대로 평가해준다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연재 타이틀만 '이번에야말로 한일 신시대'일 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방일 직전에 이러한 기사들을 내보내는 것은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히 무시하고 넘길 수 없게끔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는 것과 같은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방일 이후 구로다 국장이 작성한 다음 두 개의 기사 내용을 보아도 충분히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10월 8일 자 기사[25]에서 '한일 공동선언'에 대해 평가하기를 '과거 대일외교의 이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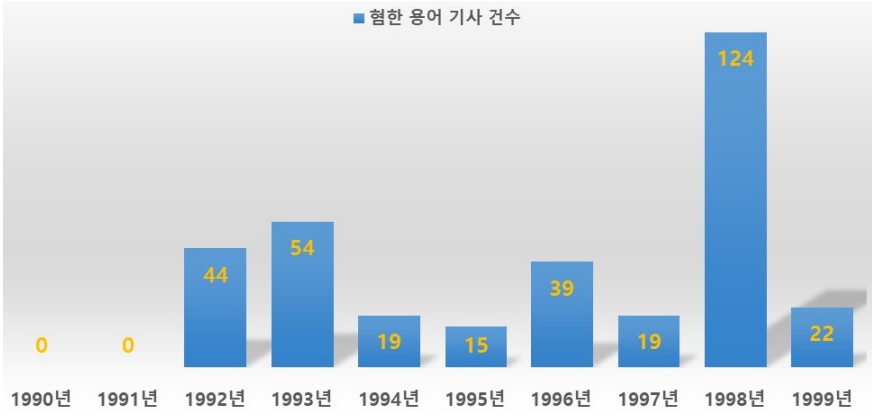
24) 「「小倉和夫·駐韓大使に聞く 過去問題 国際舞台で一緒に汗流し克服」」『産経新聞』, 1998.9.25
25) 「【視点】日韓首脳会談 首相「痛切な反省とおわび」「過去離れ」のきっかけに」『産経新聞』, 1998.10.8

수법'을 반성하였으며, 일본 국민의 혐한 감정을 '배려'한 것과 동시에, 한국인에게 뿌리 깊은 콤플렉스인 대일불신으로부터의 탈피라는 계기로 보고 있었다. 10월 24일 자 기사[26]에서는 방일 이후 발표된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대중문화개방 정책이 '지극히 인색한 내용'이라며, '조금씩 내놓는 정책만큼 어설픈 정책도 없다'라며 내정간섭에 가까운 수위를 넘은 혐한 발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을 소개할 때마다 부끄럽게 생각해 온 것 중의 하나가 일본 대중문화 금지 문제였다'면서, 이것이 '혐한 감정'을 증폭시켜왔고, 한국의 반일이라는 것은 정부나 언론 그리고 지식인 등의 초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본인이 의도하고 바라던 결과가 나왔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극명함을 기사 논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3. 주요 사건별 혐한 담론

앞의 <표1>을 아래의 <그림2>로 정리하여 다시 살펴보면 혐한 용어가 사용된 기사의 양이 가장 많은 해는 124건으로 1998년이며, 그다음이 54건으로 1993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혐한 발언을 주도하는 우익세력들이 유일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산케이신문』 또한 두 해에 가장 많은 기사 건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표2>를 통해 알 수 있다. 두 해는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이 탄생한 해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기사에서 혐한 담론이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는 앞의 <표1>을 통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혐한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일반지의 가짓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의 <표2>와 <그림3>과 같이 일반지만을 모아보았을 때 1992년과 1993년, 1996년, 1998년과 1999년이 눈에 띄게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해마다 한일정상회담,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발표, 한일 공동선언, 한일 각료간담회와 같은 주요 이슈들이 있었다. 이들에 해당하는 기사를 통해서도 혐한 담론의 표상 방식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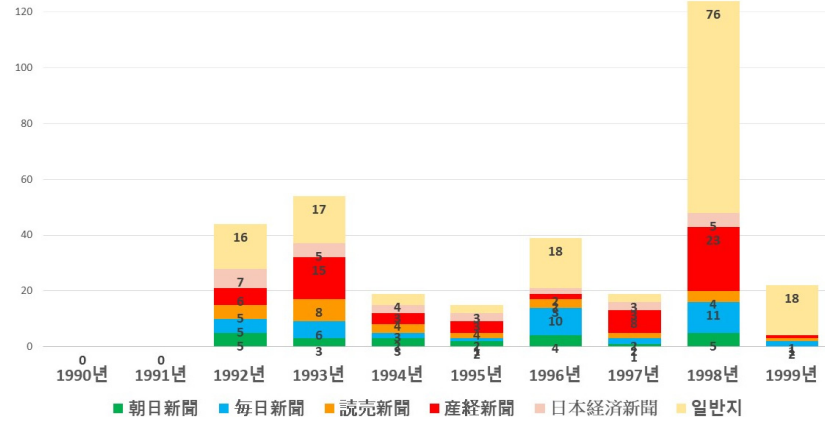
26) 「【外信コラム】ソウルからヨボセヨ「日本」と国民情緒」『産経新聞』, 1998.10.24



<그림2> 연도별 '혐한' 용어가 등장한 기사 건수

<표2> 전국지 및 일반지의 연도별 '혐한' 용어가 등장한 기사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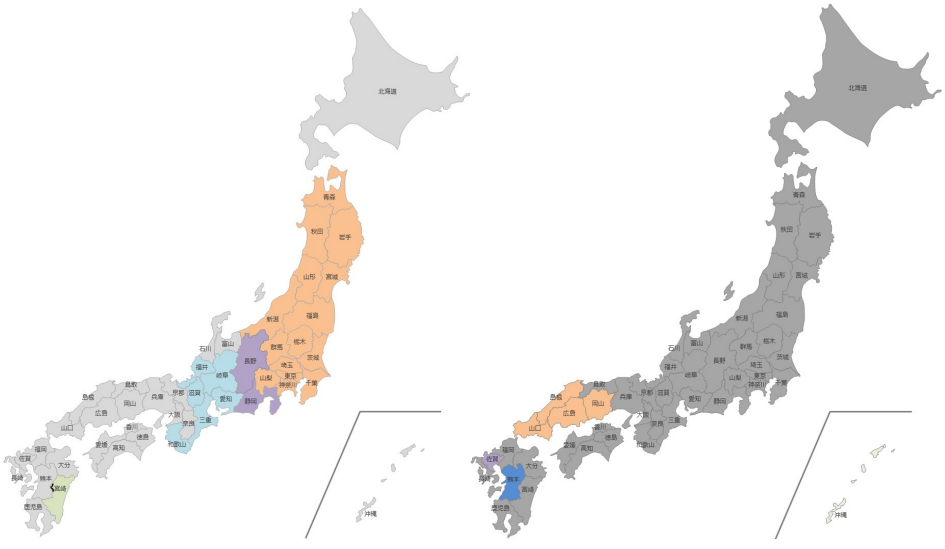
년도 / 신문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朝日	0	0	5	3	3	2	4	1	5	0
毎日	0	0	5	6	2	1	10	2	11	2
読売	0	0	5	8	3	2	3	2	4	1
産経	0	0	6	15	4	4	2	8	23	1
日経	0	0	7	5	3	3	2	3	5	0
一般紙	0	0	16	16	4	3	18	3	76	18
합계	0	0	44	54	19	15	39	19	124	22



<그림3> 전국지 및 일반지의 연도별 '혐한' 용어가 등장한 기사 건수

3.1 김영삼(1993)·김대중(1998) 정권 탄생

1993년 2월 25일에 김영삼 정권이, 1998년 2월 25일에 김대중 정권이 탄생하였다. 두 정권 탄생과 관련하여 혐한 용어 사용 기사 건수를 보면, 아래의 <그림4>와 같이 혐한 용어 사용이 전국적임과 동시에 지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 탄생과 관련된 기사로는 전국지 1개 일반지 3개(『産経新聞』3건, 『東京読売新聞』3건, 『河北新報』2건, 『中日新聞』2건)였던 것에 반하여, 김대중 정권 탄생과 관련된 기사로는 전국지 2개 일반지 4개(『産経新聞』4건, 『毎日新聞』1건, 『中国新聞』3건, 『熊本日日新聞』3건, 『佐賀新聞』3건, 『沖縄タイムス』1건)로 증가하였다. 게다가 김대중 정권 탄생 때에는 이전 해부터 한국 대통령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4> 김영삼 정권 탄생(左) 및 김대중 정권 탄생(右)과 관련된 혐한 용어 사용의 분포도[27]

김영삼 정권 탄생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주요 논조들을 살펴보면, "한국경제가 나아져도 일본에게 기술이전이나 무역적자 해소를 강경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28], "일본의 불성실을 핑계 삼아 기술이전 등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더는 한국과 교류할 수 없다"[29], 일본군

27) 회색은 전국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지는 색깔로 구별하였다. 우측의 전국지에 해당하는 회색의 농도가 진해진 것은 혐한 용어 사용의 건수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28) 「金泳三·韓国大統領誕生 「地域対立」より鮮明に/記者座談会」『東京読売新聞』, 1992.12.19

29) 「国民感情悪化に政府困惑 政策·方向性出せず 対ロシア、対韓国の両隣国外交」『東京読売新聞』,

성노예 문제는 '과거의 가시(過去のトゲ)'[30]이며, "김영삼에게 개혁이나 지도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국민감정 레벨에서의 반일·혐한 분위기는 험악함이 더해졌다"[31]는 부분만 살펴보아도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으며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1992년 1월에 방한한 미야자와 총리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로 깊이 머리를 숙인 사진이 지면에 게재된 것을 보고, "일본인과 지한파들 사이에서도 혐한 감정이 나오기 시작하였다"[32]라는 부분을 통해 식민지 지배라는 경중의 인식 차이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산케이신문』의 경우에는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에 특집 기사를 하루 낸 것[33]에 비하면, 김대중 정권 시작하기 전인 대통령선거 때부터 3일에 걸친 연재 기사를 싣고 있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었다. 김영삼 정권의 대일정책에 대한 비판이 김영삼 인물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김대중 정권에서는 "한국 정계는 1996년 총선거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이전까지는 의원 중 10%가 일본어를 잘했지만, 지금은 일본어로 평론할 수 있는 것은 5~6명 상태"[34]이며, "대통령 주변에는 지일파가 거의 없다", "한일 간에는 한일의원연맹·한일포럼·한일 역사 공동연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수의 단체나 채널이 있으나, 정권이 교체되면 유명무실해진다"[35]라며 대통령 인물 자체보다는 주변에 놓인 상황 자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의 논조들로 나타나는 것이 보인다.

3.2 한일공동선언(1998.10.8)

앞서 언급한 새 정권 탄생 이외에 혐한이 언급된 주요 사건들과 기사 건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93.2.8

30) 「社説/未来志向の日韓関係築け/韓国の民主主義が大きな一歩を進めた。32年ぶりの本格的な文民政権が来年2月にスタートする。一定の民主化を進めて中産市民層を社会の主役に押し立てた軍人出身の盧泰愚政権の後を」『河北新報』, 1992.12.20

31) 「【正論】神谷不二·東洋英和女学院大教授 安定時代での「韓国病」克服」『産経新聞』, 1992.12.24

32) 「視点/金泳三先生へ 吉田正也(外報部部次長)」『中日新聞』, 1992.12.28

33) 「【金泳三新大統領特集】李御寧·前韓国文化相 やる気出ている経営者たち」「【金泳三新大統領特集】柳健一·前駐韓国大使 「信頼」基礎に日韓関係発展」『産経新聞』, 1993.2.26

34) 「党派を超えた、世代間の闘い-韓国大統領選、金大中氏当選」『毎日新聞』, 1997.12.19

35) 「◎金大中政権 試練の船出 <下> 日韓関係 不協和音どう解消」『中国新聞』, 1998.2.28

[노태우 정권]	1992년 11월 8일	한일정상회담(교토회담)	9건
[김영삼 정권]	1993년 11월 6일	한일정상회담(경주회담)	8건
	1996년 6월 1일	2002월드컵 한일공동개최 결정	14건
	1996년 6월 22일	한일정상회담(월드컵회담)	7건
[김대중 정권]	1998년 4월 3일	한일정상회담(런던ASEM회담)	5건
	1998년 10월 8일	한일정상회담(한일공동선언)	54건
	1999년 10월 23~24일	제2회 한일각료간담회	4건

한일공동선언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2월드컵 한일공동개최에 관한 기사가 그 뒤를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일공동선언이 무라야마 담화의 틀 내에서 구상된다는 것에 강한 반감을 나타낸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였는데, 『산케이신문』의 경우에는 '미친 노인의 일시적인 망언을 문서화 함으로써 영원히 그리고 사사건건 일본국민을 구속하는 속박의 역할을 할 것'[36]이라며 극단적으로 표현한 기고를 그대로 내보냈다. 또한, 10월 8일의 한일공동선언 다음 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 국회 연설을 들은 뒤 정계의 목소리를 정리한 『아사히신문』을 보면 "과거는 이후 일절 건드리지 않는다는 결단을 어느 시점에서는 일본 총리가 해야 한다"[37]라는 아베 신조의 예견된 발언이 실려있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 '외교적 사죄 게임'[38],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카드를 이용'[39], '일본을 비난하면서 일본의 협력을 요구하는 과거 대일외교의 이상한 수법'[40], '먼저 사죄가 전제인 관계'[41], '어른의 관계가 아니다'[42], '보통의 이웃 국가 관계에서의 첫걸음'[43] 등과 같이 비유한 표현들을 살펴보면 식민지 지배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명확한 인식이 엿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산케이신문』의 연재 기사 내용을 보면 "보통의 일본인은 과장된 퍼포먼스를 싫어한다. 사죄도 본질적으로 '마음의 작업'이며, 한번 사죄하고 마음에 새기면 그것으로 '물에 흘려 보낸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 교수의 발언은 일본의 혐한이 단순한 역사 인식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님을 나타내 주고 있다. 즉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36) 「【正論】明星大学教授 小堀桂一郎 日韓共同文書への憂慮」『産経新聞』, 1998.10.3
37) 「政界の声 金大中大統領の国会演説を聞いて(発言録·8日)」『朝日新聞』, 1998.10.9
38) 「韓国大統領訪日の課題、儀式化した謝罪再考を-摩擦減らす努力必要。」『日本経済新聞』, 1998.9.21
39) 「◎日韓共同宣言 金大統領 葛藤一掃へ意欲 天皇訪韓も促す」『中国新聞』, 1998.10.4
40) 「【視点】日韓首脳会談 首相「痛切な反省とおわび」「過去離れ」のきっかけに」『産経新聞』, 1998.10.8
41) 「定番/社説、「未来志向」を本物にする一歩」『北国新聞』, 1998.10.9
42) 「◎[社説]日韓新時代を担う自覚を持とう」『愛媛新聞』, 1998.10.9
43) 「日韓首脳会談、相互不信解消へ基本文書―安保·経済協力見据え。」『日本経済新聞』, 1998.10.8

결과가 '오와비(お詫び)'인 것이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총리의 편지를 언급하면서 '사죄(謝罪)'라는 용어가 아닌 '오와비'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만을 놓고 보아도 식민지 지배를 공적인 범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잘못과 반성의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오와비'를 '사죄'라고 번역해 왔지만, 실제 이 두 단어를 일본에서는 실생활에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오와비'와 '사죄'를 결코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일공동선언 전후로 대다수의 일간지가 혐한 논조가 강한 것에 비해, 『시나노마이니치신문(信濃毎日新聞)』[44], 『홋카이도신문(北海道新聞)』[45], 『교토신문(京都新聞)』[46], 『쥬고쿠신문(中国新聞)』[47]의 경우 그와는 상반된 논조를 보였으며,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에 혐한 담론은 그 기세가 조금 주춤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대중문화 개방 이후,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국장의 혐한 용어 사용 기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4. 결론

혐한 담론이 1992년부터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일간지에서 혐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국지 및 일반지를 포함하여 1990~1999년 동안 『산케이신문』이 가장 많았다. 현재 『산케이신문』의 국장을 맡은 구로다 가쓰히로는 혐한론자로 유명한데, 『산케이신문』 전체 기사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로다 국장은 본인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과 동일한 한국인 지일파 주장들을 앞에 언급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견고히 하는 논조들로 기사를 작성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정권이 바뀌는 전후 시기마다 비관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한국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작성한 혐한 기사도 확인되었다. 본인이 의도하고 바라던 결과가 나왔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극명함을 기사 논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1993년 2월 25일에 김영삼 정권이, 1998년 2월 25일에 김대중 정권이 탄생하였는데, 일본 일간지에서의 혐한 용어 사용이 전국적임과 동시에 지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

44) 「社説＝金大統領の意欲にこたえたい」『信濃毎日新聞』, 1998.10.9
45) 「金大中大統領来日＊東京・外報部次長・青木隆直＊時計の針の逆戻りもう許すな」『北海道新聞』, 1998.10.9
46) 「社説 日韓新時代の幕開けを本物に」『京都新聞』, 1998.10.9
47) 「◎社説 新世紀へ日韓の新たな一歩を」『中国新聞』, 1998.10.9

다. 게다가 김대중 정권 탄생 때에는 이전 해부터 한국의 대통령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새 정권 탄생 이외에 혐한이 언급된 주요 사건 중 한일공동선언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2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에 관한 기사가 그 뒤를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일공동선언과 관련된 기사들을 통하여 식민지 지배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명확한 인식이 엿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총리의 편지를 언급하면서 '사죄'라는 용어가 아닌 '오와비'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식민지 지배를 공적인 범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잘못과 반성 수준의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단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이후 년도의 연구들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노윤선(2016)「일본 신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혐한(嫌韓) 기사 분석과 혐한의 해소방안-혐한 최초 기사와 최근 기사를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54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97-311

『朝日新聞』「政界の声 金大中大統領の国会演説を聞いて(発言録・8日)」, 1998.10.9

『愛媛新聞』「◎[社説]日韓新時代を担う自覚を持とう」, 1998.10.9

『京都新聞』「社説 日韓新時代の幕開けを本物に」, 1998.10.9

『河北新報』「社説/未来志向の日韓関係築け/韓国の民主主義が大きな一歩を進めた。 32年ぶりの本格的な文民政権が来年２月にスタートする。 一定の民主化を進めて中産市民層を社会の主役に押し立てた軍人出身の盧泰愚政権の後を」, 1992.12.20

『北國新聞』「定番/社説、「未来志向」を本物にする一歩」, 1998.10.9

『産経新聞』「皇室外交・残るは韓国だけ 薄れる拒否感情、熟しつつあるご訪問の機」, 1992.10.29.; 「許文道元大統領政務主席秘書に聞く・日韓間の信頼深め、北東アジア安定を」, 1992.11.8.; 「首脳会談認識にずれ 韓国・北方外交の"嫉妬"緩和 日本・嫌韓ムードを解消へ」, 1992.11.10.; 「盧泰愚大統領来日は関係修復が狙いか」, 1992.12.2.; 「【正論】神谷不二・東洋英和女学院大教授 安定時代での「韓国病」克服」, 1992.12.24.; 「【人】韓日議員連盟会長になった 金在淳さん」, 1993.2.16.; 「【「新韓国」始動】(上) 風土との戦い 繰り返される「不正腐敗追放」」, 1993.2.23.; 「【「新韓国」始動】(中)北の核心を撃て、「人権」「民主化」はっきり要求」, 1993.2.24.; 「【「新韓国」始動】(下)対日協力の時代へ 批判一辺倒からの転換が課題」, 1993.2.25.; 「【金泳三新大統領特集】李御寧・前韓国文化相 やる気出ている経営者たち」, 「【金泳三新大統領特集】柳健一・前駐韓国大使「信頼」基礎に日韓関係発展」, 1993.2.26.; 「【外信コラム】ソウルからヨボセヨ 日本人会の韓国観」, 1993.3.14.; 「新政権初の日韓・韓日議連総会 新たな関係模索 世代交代で双方苦労も」, 1993.9.1.; 「日韓首脳会談「120%成功」 金泳三外交にはずみ、APECなど積極対応へ」, 1993.11.8.; 「これからの日韓関係 知日派韓国作家・李寧熙さんに聞く 若い世代で新しい歴史を」, 1994.3.21.; 「【発信新アジア】(10)発想の転換 アジアの懸け橋へ着々」, 1995.1.12.; 「批判と称賛ないまぜの感情「反日」は韓国の"元気の素"／黒田勝弘」, 1997.3.24.; 「【金・李・李の戦い】韓国大統領選(上)反日カード」, 1997.11.27.; 「【金・李・李の戦い】韓国大統領選(下)反日カード」, 1997.11.29.; 「韓国、対日外交を反省 金融危機きっかけ、感情論けん制 竹島問題の棚上げ論も」, 1997.12.30.;

「【外信コラム】ソウルからヨボセヨ 韓国の「株価」」, 1998.1.3.; 「【さよなら金泳三大統領】(上) 「天国から地獄」の支持率 組織無視が招いた失政」, 1998.1.31.; 「【さよなら金泳三大統領】(下)"清潔主義"の落とし穴 歴史解釈で中産層敵に」, 1998.2.3.; 「小倉和夫·駐韓大使に聞く 過去問題 国際舞台で一緒に汗流し克服」, 1998.9.25.; 「【正論】明星大学教授 小堀桂一郎 日韓共同文書への憂慮」, 1998.10.3.; 「【今度こそ日韓新時代】金大中大統領来日(上)「知日派」大統領アピール」, 1998.10.4.; 「【今度こそ日韓新時代】金大中大統領来日(下) 真のパートナーシップ」, 1998.10.6.; 「【視点】日韓首脳会談 首相「痛切な反省とおわび」「過去離れ」のきっかけに」, 1998.10.8.; 「【視点】日韓首脳会談 首相「痛切な反省とおわび」「過去離れ」のきっかけに」, 1998.10.8; 「【外信コラム】ソウルからヨボセヨ 「日本」と国民情緒」, 1998.10.24

『日本経済新聞』「韓国大統領訪日の課題、儀式化した謝罪再考を-摩擦減らす努力必要。」, 1998.9.21.; 「日韓首脳会談、相互不信解消へ基本文書―安保·経済協力見据え。」, 1998.10.8

『信濃毎日新聞』「社説＝金大統領の意欲にこたえたい」, 1998.10.9

『毎日新聞』「党派を超えた、世代間の闘い 韓国大統領選、金大中氏当選」, 1997.12.19

『中国新聞』「◎反日·嫌韓…どう超える あす広島でシンポ(広島県)」, 1997.3.19.; 「◎日韓新時代どう築く 修道大シンポ 若者交流など訴え(広島県)」, 1997.3.21.; 「◎金大中政権 試練の船出 <下> 日韓関係 不協和音どう解消」, 1998.2.28.; 「◎日韓共同宣言 金大統領 葛藤一掃へ意欲 天皇訪韓も促す」, 1998.10.4

『中日新聞』「視点/金泳三先生へ 吉田正也(外報部部次長)」, 1992.12.28

『東京読売新聞』「金泳三·韓国大統領誕生 「地域対立」より鮮明に/記者座談会」, 1992.12.19.; 「国民感情悪化に政府困惑 政策·方向性出せず 対ロシア、対韓国の両隣国外交」, 1993.2.8

『北海道新聞』「金大中大統領来日＊東京·外報部次長·青木隆直＊時計の針の逆戻りもう許すな」, 1998.10.9

논문투고일 : 2021년 03월 31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4월 16일
1차 수정일 : 2021년 05월 13일
2차 수정일 : 2021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5월 17일

〈要旨〉

1990~1999년 일본 일간지의 혐한 담론 표상 방식

노윤선

혐한 담론이 1992년부터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일간지에서 혐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국지 및 일반지를 포함하여 1990~1999년 동안『산케이신문』이 가장 많았다. 1993년 2월 25일에 김영삼 정권이, 1998년 2월 25일에 김대중 정권이 탄생하였는데, 일본 일간지에서의 혐한 용어 사용이 전국적임과 동시에 지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 정권 탄생 이외에 혐한이 언급된 주요 사건 중 한일공동선언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2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에 관한 기사가 그 뒤를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Representation of K-Hate in Japanese Dailys from 1990 to 1999

Roh, Yoon-Sun

It was confirmed that K-Hate had emerged since 1992, and it was seen that various daily newspapers used K-Hate terms over the years. The Sankei Shimbun had the largest number of newspapers from 1990 to 1999, including national and general newspapers. On February 25, 1993, Kim Young Sam regime was born and on February 25, 1998, Kim Dae Jung regime was born. It was confirmed that the use of K-Hate terms in Japanese daily newspapers increased at the same time as nationwide. In addition to the birth of the new regime, there were the most articles related to the Korea-Japan Joint Declaration among the major cases mentioned K-Hate, followed by the 2002 World Cup Korea-Japan Joint Hosting.